

고흥군, 빈집 정비해 지역인구 유입 노린다

청년들, 빈집 ‘어가스테이’ 조성 경관 토대 관광·체험·체육 활용 전국 11개 대학서 어촌봉사캠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속 추진

고흥군이 빈집을 정비해 지역 인구 유입을 활성화 시킨다. 군은 최근 고령화가 심한 어촌에서 대규모 청년, 대학생이 동참해 수십 년 방치된 빈집을 주민과 합심해 ‘짧은 감성’ 어가스테이를 조성하기 위해 캠프를 여는 등 인구 감소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해비타트대학동아리 연합(CCYP, Campus Chapters & Youth Program)과 함께 ‘2024 하계 어촌봉사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서 전국 11개 대학(가천대, 강남대, 경상국립대, 고려대, 덕성여대, 서울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협성대) 34명 학생이 고흥군 포두면 오취마을에 머물며 빈집 재생과

마을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어촌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세대·지역 간 연대를 실천하며 마을을 함께 바뀌어나가는 어촌봉사캠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쇠락 문제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취도-금사항 권역)에서, 현재 3회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20년 넘게 방치된 어촌의 빈집을 주민, 전문가, 민간 조직, 청년이 결합해 함께 고쳐 ‘바다뷰 어가스테이’를 조성하는 DIT(Do It, Together) 방식으로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 청년들이 맘 흘러 조성한 어가스테이는 향후 고흥의 수려한 해양 경관자원을 토대로 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 숙박, 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과 지역 살이 관심자를 인입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점점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방치 빈집의 대안적인 활용 사례로서 모델링해 운영할 계획이다.

빈집 재생과 함께 마을환경을 개선하

는 활동도 이어졌다. 마을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폐창고 문에 주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마을과 고흥을 상징하는 콘텐츠를 담은 벽화를 그렸다. 이는 지난 어촌봉사캠프 시 제작됐던 굴과 가리비 캐릭터를 활용하고 심화해 도안을 디자인했다.

더불어, 마을 부녀회와 함께 오취마을의 수산자원인 갯벌에서 직접 캔 바지락을 재료로 파스타, 전 등을 만들어 주민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촬영해 SNS 홍보 마을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나아가 주민들의 특징적인 말투, 음성(고흥 사투리)을 딴 이모티콘, 손 글씨를 활용한 엽서 등 마을 홍보물들이 향후 제작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박종팔 포두면장은 “청정 해역을 가진 고흥에 많은 대학생이 찾아와 활동을 진행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가스테이 등 남긴 결과물을 토대로 청년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마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균 한국해비타트 사업지원팀장은

“학생 누군가에게는 이 활동이 작은 도전일 수도, 큰 도전일 수도 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마음속에 품어가는 무언가가 생길길 바란다”며 행사의 의미를 짚었다.

신영원 한국해비타트 CCYP 총괄회장은 “모든 공간이 예쁜 오취마을에 어가스테이라는 공간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 학생으로서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어촌봉사캠프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취도 금사항 어촌영어조직(송주민 소장, 지역사회화협동조합)은 3회째 마을과 공간을 청년들과 함께 바꾸고 나가고 있는 만큼 오늘의 함께 동참(DIT)한 결과를 이어 더 살기 좋은 어촌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흥군과 취도-금사항 권역은 바다, 수산, 경관 등 마을의 잠재 자원을 대안적으로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등 창의적인 해법으로 어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계속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 여수시

여수시가 8월 2일과 3일 양일간 거문도 삼호고 물양장 일원에서 ‘제22회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거문도에서만 볼 수 있는 비경과 역사·문화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 첫날에는 지방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된 ‘거문도 뱃노래’ 시연을 시작으로 국악 팝밴드 ‘올라’의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이 열리며 불꽃놀이, 축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특히 행사 끝에는 여수 백도 앞바다에서 촬영한 영화 ‘밀수’를 상영한다.

둘째날에는 해군 장끝부대에서 준비한 안보콘서트가 열려 마술, 사물놀이, 비보잉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축제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거문도 해안투어 △맨손활어잡기 △지인망꾸기 △해풍속 떡 만들기 △수박 빨리 먹기 등 이색 이벤트가 마련되어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웃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거문도 특산품인 갈치, 거북손, 홍합 등을 요리한 시식 코너와 연안여객선 안전체험관, 거문도해풍속 홍보관, 거문도 역사문화관 운영으로 관광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제23회 광양전어축제 개막 이달 23~25일

‘제23회 광양전어축제’가 오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어! 별해는 밤을 헤엄치다”라는 주제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배알도 섬정원 보물찾기’, ‘청소년 행복 락(樂) 페스티벌’,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민속씨름 대회’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 외에 배알도 섬정원, 별해는 다리 야간 경관 같은 볼거리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 첫째 날은 포에버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관광객을 위한 즉흥 무대, 전어가요제 예선이 펼쳐진다. 개막식이 열리는 둘째 날은 매년 축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어 잡기 체험, 청소년 행복 락(樂) 페스티벌, 전남 무형문화제 전어잡이 소리 시연, 불글씨 퍼포먼스, 초대 가수(장민호)의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은 전국 전통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전어 잡기 체험, 전어가요제 본선, 초대 가수(김소유 등) 축하공연을 끝으로 사흘간의 축제가 막을 내린다.

전어 축제가 열리는 망덕포구는 광양진월IC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국도 2호선을 이용하면 행사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 망덕 먹거리타운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므로 주차는 전 어조형물이 있는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이나 진월초등학교 뒤쪽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김정일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망덕 먹거리타운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인 만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좌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구례군, 현장 점검 실시

구례군은 좌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군도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지는 절개지 사면에서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 옹벽 균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지역으로,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에 약해진 사면 등 현장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부터 급경사지 구간(시암재~성삼재) 정비사업을 통해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면보강,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 등으로 군도 12호선 이용자 및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장흥 아르미 쌀’ 수상

장흥군은 31일 전남도가 주최한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에서 ‘장흥 아르미쌀’이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전남 쌀 판매 활성화와 선정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에서 심사해 매년 선발하며 밥맛, 품종, 중금속, 잔류농약, 외관상 품질평가 등 8가지 분야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장흥 아르미쌀(새청무)은 전라남도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우수 품종이다.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5% 이상, 순도 90% 이상, 도정 15일 이내의 최고품질의 쌀 기준에 맞게 재배부터 생산까지 관리되고 있다.

장흥 아르미쌀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됐다. 이후 품종 혼입, 품종 변경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브랜드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26일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수시 제공

“나눔을 베풀어”... 여수시 시전동 아름다운 기부 문화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귀준, 송재열)는 지난달 26일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초수급자인 한 어르신은 “평생

자식도 행여 준 적 없는 생일을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들고 찾아와 축하해 주니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족하지만 나처럼 소외된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10만원을 건넸다.

이 자리에 함께한 동 관계자는 “어르신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르신이 베푼 기부의 뜻에 깊이 감동했다”며 “지역 내 소외 계층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득량면 청년협의체’ 재능기부로 나눔 문화 확산



보성군 득량면 청년협의체가 재능기부활동으로 50여개 목재 도마를 만들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득량면 청년협의체(회장 지정란)’가 ‘모닥모닥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재능기부에 나선

다고 밝혔다.

‘모닥모닥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득량면 청년협의체는 이번 활동을 통해 만든 50여개 목재 도마를 관내 홀로게신 어르신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득량면 청년협의체 지정란 회장은 “득량면 관내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학재 득량면장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득량면 청년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득량면 청년협의체’는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 창구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송민섭 기자